서동철 감독

박재헌 수석코치

서동철 감독, 복귀시기 미정

수술치료후 코트 복귀 체력 한계로 재차 휴식
KB스타즈 박재헌 수석코치 임시 지휘봉 중책

KB스타즈는 올 시즌 2번째로 '감독 부재' 상황을 겪고 있다. 서동철 감독이 7월 십이지장 종양제거수술을 받고 치료와 휴식으로 5개월 가까이 자리를 비웠다. 6일 춘천 우리은행전을 통해 코트에 복귀한 서 감독은 다시 체력의 한계를 느껴 16일 KEB하나은행과의 홈경기 후 재차 휴식 의사를 내비쳤다.

서 감독의 빈 자리를 메우는 것은 박재헌 수석코치의 몫이다. 시즌 전 팀 훈련부터 임시 지휘봉을 잡은 박 코치는 1라운드에서 1승4패로 주춤했지만, 2라운드에서 4승1패로 5할 승률을 맞추며 흔들리던 팀을 정상궤도로 올려놓았다. 3라운드 시작과 함께 서 감독이 돌아왔지만, KB스타즈는 4경기서 1승3패로 부진했고, 박 코치가 고비에서 중책을 다시 맡았다.

치료를 마쳤어도 어렵고 큰 수술이었기에 서 감독에게는 휴식이 좀더 필요했다. 팀을 향한 책임감에 복귀를 서두른 것이 문제였다. 박 코치는 20일 용인 삼성생명전을 앞두고 "첫 2경기가 끝나고서 체력 문제를 느끼신 것 같다. 앞으로 20경기가 넘게 남았는데 괜찮을지 걱정하시더라. 이후 경기 때 휘청거리시거나 얼굴이 하얗게 되시는 걸 봤다"며 서 감독의 상태를 설명했다. 결국 서 감독은 리더로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휴식을 자청했다, '임시 감독'이지만, 그 무게감은 엄청나다. 박 코치는 "1라운드 때는 정말 '멘붕(멘탈붕괴)'이었다. 이제 (감독) 자리에 서있을 때 흐름을 약간 아는 정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 감독의 복귀 시기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는 떠나면서 코칭스태프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박 코치는 "일단 올스타전 이후 돌아올 생각이신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준비가 돼도 복귀하지 않을 만큼,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올스타전은 내년 1월 17일 충남 당진에서 열린다. 과연 KB스타즈가 서 감독의 복귀를 더 늦출 수 있을 만큼 경기력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

용인 |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크리스마스엔 '헤인즈 복귀한다' 전해라

11월 15일 무릎 부상 후 오리온 3승8패
추일승 감독 "25일 경기부터 출전 예정"
헤인즈 "복귀는 내게도 좋은 선물될 것"

매년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다. 전국 각지의 성당, 교회에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절의 즐거움에 대한 기대감에 부푼다. 남자프로농구 오리온도 크리스마스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팀의 중심인 애런 헤인즈(34·사진)의 복귀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11월 15일 KCC전에서 무릎 부상을 당한 그는 1개월을 훌쩍 넘긴 25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릴 SK와의 원정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헤인즈 부상이 가져온 오리온의 추락

헤인즈가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오리온은 21경기에서 18승3패를 기록했다. 헤인즈와 함께일 때 무서울 것이 없었다. 시즌 초반이었음에도 페이스가 워낙 좋아 정규리그 우승은 '떼 논 당상'처럼 보였다. 그러나 헤인즈가 빠지면서 오리온은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팀이 됐다. 20일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kt전에서 92-66의 대승을 거뒀지만, 헤인즈 없이 치른 11경기에서 3승8패에 그쳤다. 그 사이 선두 자리마저 모비스(23승9패)에 내줬다. 자신감에 차있던 오리온 추일승(52) 감독의 얼굴도 어두워졌다. 추 감독은 "죽지 못해 산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22일 팀 훈련 합류

헤인즈는 부상 직후 3주간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추가로 부상공시기간을 2주 더 늘렸다. 부상공시기간 동안 헤인즈는 휴식과 재활을 병행해 왔다. 부상을 당한 왼쪽 무릎 근력운동을 꾸준히 해왔으며, 최근 들어선 슈팅과 가벼운 러닝은 물론 움직이다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 추 감독은 "24일로 대체기간이 종료된다. 정상적으로라면 25일 경기부터 출전한다. 본인도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단 22일부터는 팀 훈련에 참가시킬 예정이다"고 밝혔다.

●헤인즈 "복귀는 내게도 큰 선물"

침체에 빠진 오리온에 헤인즈 복귀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전망이다. 헤인즈 역시 "팀의 경기를 보면서 빨리 복귀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나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다. 복귀는 내게도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추 감독은 "헤인즈가 복귀하면 아무래도 공격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다만, 대부분의 팀들이 단신 외국인선수를 언더사이즈 빅맨으로 바꾸면서 골밑이 강해졌다. 헤인즈가 복귀해도 포스트 수비에는 변화를 줘야 한다. 잘 준비해서 시즌 초반의 분위기를 되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KB스타즈 강아정, 홍아란, 김보미(왼쪽 2번째부터)가 20일 용인체육관에서 열린 삼성생명과의 원정경기에서 2차 연장 접전 끝에 승리한 뒤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용인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햄비 31점·22R…KB, 2차 연장서 함박웃음

삼성생명 맹추격 뿌리치고 80-77 신승
스톡스 역대 30번째 트리플-더블 달성

KB스타즈가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삼성생명을 꺾고, 3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KB스타즈는 20일 용인체육관에서 열린 삼성생명과의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3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올 시즌 첫 2차 연장 승부 끝에 80-77로 이겨 단독 4위(7승8패)로 올라섰다. 삼성생명(6승9패)은 5위로 내려앉았다.

양 팀의 경기력은 요동쳤다. 삼성생명이 1쿼터 9개의 턴오버를 범했으나, KB스타즈는 부정확한 슛 탓에 19-15, 4점차 리드에 만족해야 했다. 2쿼터에는 5득점에 그치며 24-29로 역전을 허용했다.

KB스타즈는 4쿼터 들어 장기인 외곽슛을 앞세워 분위기를 뒤집었다. 종료 39초를 남기고 변연하(8점·8어시스트)와 햄비(31점·22리바운드)의 콤비플레이로 55-54로 역전한 뒤 삼성생명의 선부른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 승기를 잡는 듯했다. 그러나 종료 9초를 남기고 삼성생명 고아라(12점)에게 외곽슛을 얻어맞고 57-57 동점을 허용해 연장에 돌입했다.

1차 연장, KB스타즈 강아정(13점)이 양쪽 사이드에서 3점슛을 성공시키며 다시 분위기를 달궜다. 그러나 1차 연장 종료 5초를 남기고 삼성생명 박하나(12점)에게 동점 골밑슛을 허용해 67-67로 2차 연장에 들어갔다. 두 번의 실수는 없었다. 변연하가 스틸 후 햄비에게 속공을 연결하는 등 연속 어시스트에 성공하며 75-69로 도망갔다. 종료 28초를 남기고 햄비의 골밑슛으로 쐐기를 박으며 장장 50분에 걸친 승부에 종지부를 찍었다.

햄비는 44분24초를 뛰며 31점·22리바운드로 승리를 이끌었고, 강아정은 3점슛 3개를 포함해 13점·7리바운드로 힘을 보탰다. 삼성생명 스톡스는 동료 해리스의 햄스트링 부상 속에 홀로 50분을 뛰며 21점·27리바운드·11블록으로 여자프로농구 역대 30번째 트리플-더블을 작성했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2014년 2월 26일 KDB생명 신정자(현 신한은행)의 14점·11리바운드·11어시스트 이후 662일 만에 나온 대기록으로, 블록슛을 포함한 트리플-더블은 2006년 7월 3일 KB스타즈 마리아 스테파노바(22점·17리바운드·10블록) 이후 역대 2번째다.

용인 |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나눔 Lotto 6/45 당첨번호

• 제 681 회 Lotto6/45 당첨번호

당첨번호						2등 보너스 숫자
21	24	27	29	43	44	7

1등 총 당첨금 16,177,973,628

*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게임 기준이며, 당첨 게임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금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및 당첨자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 일치	6 명	2,696,328,938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일치 + 2등 보너스 일치	37 명	72,873,756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 일치	1,441 명	1,871,152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 일치	73,062 명	50,000	50,000원
5등	3개 숫자 일치	1,282,079 명	5,000	5,000원

* 상기 당첨금은 1게임당 당첨금액 기준입니다.(세금 공제 전)

• 추첨일 : 2015.12.19
•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 나눔로또 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nlotto.co.kr

로또 구입시 유의사항
●로또구매는 일확천금의 요행이 아니라 가벼운 오락 및 기부이며, 지나친 복권구매는 도박중독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만19세 미만)은 복권을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을 초과하여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삼성화재 근면한 그로저 굿!…레오 재영입설은 낭설

독일대표팀 소집…가족과 30일 출국
4라운드 공백기간 이유로 교체설 무성
삼성화재 "실력·인성 굿" 헛소문 일축

삼성화재 외국인선수 괴르기 그로저(31·사진)의 가족이 19일 한국을 찾았다. 독일에 거주아는 아내와 7세, 9세 두 딸이 겨울방학을 맞아 온 것이다. 그는 "자녀들을 학교 교육에 빠트리지 않게 하려는 생각에 한국방문을 이 시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로저는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30일 독일대표팀 소집을 위해 출국한다. 내년 1월 5일부터 10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벌어지는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유럽지역 예선전에 참가한 뒤 돌아올 예정이다. 만일 독일이 예선을 통과해 준결승, 결승까지 갈 경우에는 복귀 예정일은 1월 12일로 늦춰진다. 시차 적응까지 고려하면 빡빡한 일정이다.

구단 관계자는 그로저 가족의 이번 방문에서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우선 그로저의 돈에 대한 철저한 개념을 확인했다. 지난 시즌까지 삼성화재 유니폼을 입었던 레오와는 큰 차이가 난다고 비교했다.

레오는 돈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반면 그로저는 독일인다운 합리성이 눈에 띄었다. 레오는 한국에서 3년 동안 번 돈으로 미국

삼성화재 그로저(오른쪽)가 20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KB손해보험과의 3라운드 마지막 홈경기를 승리로 이끈 뒤 한국을 찾은 가족과 함께 밝은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이주를 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플로리다로 이사했다. 구단 관계자는 "그곳에서 만난 질 나쁜 쿠바 친구들의 꼬임에 빠져 흥청망청 돈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화재가 새 시즌을 앞두고 계약을 끝낸 이유다.

그로저는 달랐다. 경제관념이 투철했다. 이번에 가족이 이용한 항공기의 좌석을 놓고도 많은 생각을 했다. 구단은 당초 그로저와 계약할 때 가족초청비용은 한 차례만 부담한다고 약속했다. 비행기 좌석은 이코노미로 한다고 계약서에 넣었다. 그로저가 오가는 비용부담도 처음 한국을 찾을 때와 돌아갈 때뿐이고, 나머지 추가이동비용은 그로저가 부담한다. 이번에 독일대표팀의 부름을 받고 나가는 비행기 편도 그로저 스스로 부담한다.

그로저는 구단과 비행기 좌석을 놓고 많은 상의를 했다. 가족의 편의를 위해 비즈니스석을 구해주고는 싶지만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그로저는 구단에 가능한 한 좀 더 싼 가격의 비즈니스석을 요구했다. 추가비용 부담이 적은 것을 요구했다. 다행히 구단이 발 벗고 나서서 원하는 비즈니스석을 찾아냈다. 구단 관계자는 "슈퍼스타라 돈이 많을 텐 데도 그런 비용까지 꼼꼼히 따지는 것에서 독일인의 근면성이 느껴졌다"고 귀띔했다.

지난 시즌 레오, 올 시즌 그로저와 함께 지낸 통역들의 평가도 다르지 않았다. 통역은 외국인선수와 24시간 붙어 지내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을 누구보다 잘 안다. "레오는 배구실력은 좋아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티가 여기저기서 났지만, 그로저는 고등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답다"고 통역은 귀띔했다. 삼성화재는 내년에 실시할 트라이아웃 때도 같은 조건이라면 북미나 유럽 등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선수들 중 인성이 빼어난 선수를 뽑을 생각이다. 문제는 짧은 트라이아웃캠프 기간 동안 인성을 어떻게 관찰하느냐다.

한편 그로저의 독일대표팀 복귀를 놓고 요즘 배구계에는 소문이 하나 돌았다. 삼성화재가 4라운드 중요한 순간 그로저의 공백에 따른 부담이 너무 커서 이번 기회에 그로저를 돌려보내고 레오를 재영입한다는 소문이었다. 현행 규정상 한 시즌에 한 차례 외국인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20일 삼성화재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그 얘기는 낭설이었다. 삼성화재 임도헌 감독은 "그로저가 없는 4라운드 초반에 치러야 할 OK저축은행, 대한항공, 현대캐피탈과의 경기가 이번 시즌 팀의 성패를 결정한다. 여기서 1승만 하면 남은 라운드가 편해진다. 우리는 4∼6라운드에서 매번 4승2패를 해야 시즌에 12패를 한다. 지난 시즌 3위 한국전력이 13패를 했다. 우리도 14패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그로저가 떠나기 전에 치르는 한국전력과의 4라운드 경기(29일)가 중요하고, 그로저가 없을 때 치르는 상위 3개 팀과의 3경기에서 한 경기라도 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 |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